

# “세대·배경 넘어”… 광주·전남 투표소로 ‘힘찬 발걸음’

##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모저모

투표 개시부터 유권자 발길 ‘복적’ 109세·103세 어르신, 지팡이 짚고 “같은 국민으로”…이주여성 ‘한 표’ ‘인증도장 어디에’…귀여운 실수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길” 한 목소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인 3일, 광주·전남 곳곳의 투표소에는동이 틀 무렵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09세 고령 유권자부터 생애 첫 투표에 나선 만 18세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와 먼 타지에서 온 이주여성까지 세대와 배경을 넘어 ‘잡된 일꾼을 뽑자’는 한뜻으로 모인 이들의 발걸음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됐다.

### ●“변화 위해서”… 새벽 깨운 시민들

이날 오전 6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제2투표소 앞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찾아온 유권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투표용지를 받아 든 시민들은 후보의 기호를 꼼꼼히 살핀 뒤, 기표소로 이동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투표소를 나섰다.

제양임(71)씨는 “출근길에 앞서 서둘러 투표하러 나왔다”며 “마음속에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후보가 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꼭 당선돼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비슷한 시간, 동천동 제4투표소 앞에는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나온 모자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반려견의 목줄을 꼭 잡은 시민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이들이 행사한 한 표에는 지역의 미래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제2투표소에서 김정자(109) 할머니가 투표를 마친 뒤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에 대한 기대와 청년 정책 지원 등 각자의 간절한 바람이 깃들었다.

송관후(23)씨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생활고가 심각한 만큼 청년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기를 넘는 어르신의 ‘한 표’

오전 9시께 동구 유권자 중 ‘최고령’인 김정자(109) 할머니가 ‘장수 지팡이(청려장)’를 짚고, 딸 이종순씨와 사위의 부축을 받아 계림1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몸소 겪어온

김 할머니는 이날도 어김없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투표에 나섰다.

기표소를 나온 그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가 더 발전하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 젊은 사람들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야 한다”며 “나 역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꼭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남구 진월동 제1투표소에서는 백삼봉

(103)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손녀, 증손녀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함에 용지를 넣은 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투표소를 나섰다.

그는 “오늘도 가족들에게 먼저 투표하러 가라고 독려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해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 ●이주민의 삶과 꿈 깃든 선택

오전 10시께, 필리핀 출신 귀화 여성 세라(45)씨도 광산구 우산동 제4투표소를 찾아 미래를 향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지난 1999년 한국에 이주한 그는 2002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며 귀화했고, 현재는 네 자녀를 키우는 한국 여성이자 이주민 통역가, 광주전남필리핀공동체 대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세라씨는 “외국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불법체류자 문제나 비자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참여는 세라씨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투표를 통해 표현한 그의 바람이 더 많은 이주민의 목소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 한 표가 더 많은 이주민을 대변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서툰 첫 투표에 담은 희망과 다짐

생애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학교박정소년 김려민(18)군은 오후 1시께 광산구 신창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긴장한 탓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김군은 ‘투표 인증 도장’을 기표소 안에서 찍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밖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줄 알고, 그냥 기표소

밖으로 나와버리는 ‘귀여운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김군은 무사히 첫 투표를 마치게 됐다.

김군은 “인증 도장을 못 찍어 아쉬웠지만, 그마저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며 “밝은 미래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마음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께 투표하러 집을 나선 박유민(18)양도 “이번 대선이 첫 투표라 더욱 관심이 크다”며 “벌어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확대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깜빡’ 실수에 발만 동동 굴러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를 헛갈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 투표의 특성상 이행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거나, 같은 동네의 옆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 “잃어버려 가져오지 못했다”며, 선거사무원을 붙잡고 한참동안 하소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 선거사무원은 “선거마다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투표소를 헛갈려 그냥 돌아가는 분이 생긴다”며 “선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소중한 한 표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유철·윤준명·정승우 기자

## 우 의장 “혼란 딛고 국민 뜻 모인 민주사회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한 표를 행사했다.

서울 노원구갑이 지역구인 우 의장은 하계1동 제4투표소에서 배우자 신경혜씨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투표 후 “이제 대한민국의 혼란을 딛고 보다 번영된, 국민들의 뜻이 모인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외신들 “한국 새 대통령,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 대선 실시간 속보 타전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의 선거로 대한민국은 지난 12월3일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따라 극복하고, 다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투표는 힘이 세다.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WSJ은 최근 몇 달간 한국은 세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쳤으면서 대선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중·대북 관계에 어떻게 접근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실시간 체크·온라인 독려”… 막판 투표율 올리기 ‘전력’

### 각 당 지역캠프 선거일에도 분주 투표 종료까지 참여 독려에 집중 피켓 캠페인·문자전송 등 총동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광주·전남 각 정당 선거캠프는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된 상황에서 각 선대위는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독려에 집중하는 등 투표 종료 시각까지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역위원회별 단체대화방, SNS 메시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2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투표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조한 지역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략했다.

심철의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보단장은 “모든 당원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투표를 마친 당원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족·지인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며 “중·고령층 밀집 지역에는 유선전화, 청년층이 많은 지역에는 SNS를 활용한 맞춤형 독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에는 직접 찾아가 피켓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정현(왼쪽)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 21대 대선일인 3일 광주 5개 지역 투표소를 찾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제공

이날 광산구·서구·북구를 전천후로 누빈 박군택(광산갑) 의원은 “압도적 승리를 위해 마지막 한 표가 간절하다. 오늘의 선택이 내란을 연장하느냐, 종식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투표율 70%를 넘지 못한 지역을 집중 공략해 ‘투표율 85%·득표율 9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2개 시군의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표율이 낮은 시군에 전화 및 문자를 통한 투표 독려에 나섰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마련한 상황실에서 시간별로 22개 시군의 투표율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시군별 지방의

원이나 도의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나 문자 전송을 통해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감시단 운영을 통해 각 투표소 근방에서 감시활동도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는 “감시단 운영 인원은 시군별 지역위원회 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략 2~3명 정도로, 이들을 통해 투표소 근처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에는 따로 개표상황실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실시간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군소정당들도 막판까지 투표 독려전에 총동원됐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광주 5개 지역구를 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읍소하며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투표 종료 시각인 이날 오후 8시까지 ‘1인 10명 투표 독려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등을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오지현·정성현 기자